



광주FC는 오는 17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산과 하나원큐 K리그2 3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지난 1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산무궁화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광주FC의 펠리페가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파죽지세’ 광주FC ‘개막 3연승’ 간다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서 부산아이파크와 홈경기 펠리페, 골감각 절정 ...창단 첫 개막전 3연승 도전



GWANGJU FOOTBALL CLUB

프로축구광주FC가 우승 후보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창단 첫 개막전 3연승 도전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17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산과 하나원큐 K리그2 3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기세가 무섭다. 광주는 1라운드 서울 이랜드를 2:0으로 꺾은 데 이어 안방에서 치러진 2라운드에서는 아산무궁화를 상대로

시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펠리페의 화려함이 절정에 올랐다. 그는 2경기 동안 4골 1도움으로 리그 득점 선두에 올랐고, 아산전 헤트릭까지 달성했다.

또 광주 역사상 처음으로 페널티 킥 없이 퍼펙트 헤트릭을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골 감각과 자신감, 동료들과 호흡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

펠리페의 파트너이자 스피드를 장착한 신에 콤비 엄원상과 이희균도 빼놓을 수 없다. 두 선수는 갓 프로에 데뷔했음에도 펠리페와 호흡은 물론 측면 공격과 수비 가담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 공격의 활력소나 다름없다.

아산이 자랑하는 주세종과 이명주, 고무열을 제압한 여름-박정수-최준혁의 삼각편대는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강력함을 한껏 뽐내고 있고, 페널티 킥을 선방한 골키퍼 이진형과 포백 수비의 안정감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부산은 2년 연속 승강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강력한 우승후보다. 특히 올 시즌 조덕태 감독을 비롯해 노상래, 이기형 등 호화 코칭스텝 뿐 아니라 국가대표 김민환과 특급 공격수 호물로, 권용현, 이동준 등 경쟁한 멤버들도 갖췄다.

광주는 지난 시즌 부산을 상대로 1승 3무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지난 시즌 첫 승 상대도 부산이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 FC안양과 개막전 1-4 충격패 이후 수원FC전을 2-1로 승리하며, 여전히 강팀의 면모를 보였다. 과연 광주가 부산마저 잡고 창단 첫 개막 3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아정 기자 chaajung@

배드민턴 안세영, 무릎 부상으로 기권

중국 마스터스 여자단식 32강전서 기권패

2020년 도쿄올림픽을 바라보는 배드민턴 기대주 안세영(17·광주체육고·사진)이 2019 중국 마스터스 첫 경기에서 무릎 부상으로 기권했다.

안세영은 13일 중국 하이난성 링수이에서 열린 대회 여자단식 32강전에서 저우멍(중국)에게 기권패 했다.

안세영은 1게임을 21-14로 승리하고, 2게임에서는 19-21로 패했다.

3게임에서는 7-8까지 가다가 무릎 부상을 이유로 기권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1게임에서 징후가 있었지만 참고 뛰었다. 3게임에서는 경기를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돼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안세영은 중학생이던 2017년 12월 성



인 선수들을 제치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2019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9전 전승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태극마크를 유지했다.

안세영은 도쿄올림픽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 세계랭킹이 95위에 그쳐 등급이 높은 주요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꾸준한 국제대회 출전으로 랭킹을 끌어 올려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걷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13일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제37회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 및 제29회 회장기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2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한 함평군청 레슬링팀

부활 ‘함평군청 레슬링팀’ 메달 사냥 성공

제37회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서 금메달 2, 동메달 2개 획득

김형주와 이정근이 해체된 지 4년 만에 부활한 함평군청 레슬링팀에게 첫 금메달 선물을 안겼다.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함평군청 레슬링팀은 13일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제37회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 및 제29회 회장기전국중학교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차지하는 등 활약을 펼쳤다.

이번 경기에서 현 국가대표인 김형주는 여자부 자유형 53kg급 오현영(우성구청)과의 결승전에서 폴승을 거두고, 팀의 첫 금메달을 안겼다.

정면태클이 주특기인 김형주는 50kg급 현 국가대표인 오현영과의 경기에서 전반을 2-0 앞선 뒤 후반 폴승으로 제압,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정근도 수원시청 김영하와의 결승전에서 주특기인 들기 기술과 옆굴리기를 적극 활용하며 8-0 테크니컬폴승을 거두고 팀의 2번째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이밖에 양시온도 남자부 그레코로만형 72kg급 4강전에서 김성민(강원도체육회)에 전반 3-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후반 3점을 빼앗기는 후회점패를 당해 동메달 획득에 만족해야 했다.

김종민은 남자부 그레코로만형 63kg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남자부 그레코로만형 72kg급 송홍규는 아쉽게도 8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함평군청 레슬링팀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운영해오다 2015년 해체의 아픔을 겪었으나, 해체 4년만인 지난 1월 창단식을 갖고 재출범했다.

/차아정 기자

KIA 새얼굴들 홈런 ‘평평’ ...kt 제압

kt서 트레이드된 이창진 3점포 날려 새 외국인 타자 해즐베이커 솔로홈런



프로 야구 KIA 타이거즈가 새 얼굴들의 맹활약으로 kt wiz를 꺾고 시범경기 3연승을 달성했다.

KIA는 1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야가 KBO 리그 시범경기에서 kt를 9-5로 꺾었다.

5-5로 맞선 7회말, 지난여름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이창진이 3점짜리 좌월 홈런으로 균형을 깼다.

지난해 6월 오준혁과 팀을 맞바꿔 kt에서 KIA로 트레이드된 이준혁은 전 소속 팀에 일격을 가하는 홈런으로 시범경기 개인 1호 홈런을 장식했다.

8회말에는 새 외국인 타자 제라미 해즐베이커가 대타로 나와 우월 솔로포로 점수를 벌였다.

해즐베이커는 이 경기 전까지 7타수 무안타로 침묵하고 있었으나, 시원한 홈런포로 자신의 KBO리그 시범경기 첫 홈런을 신고했다.

KIA는 4회말까지는 5-1로 앞섰다. KIA 타선은 kt의 ‘특급 신인’ 이대은을 초반부터 공략했다.

1회말 1~4번 타자 김선빈, 이명기, 안치홍, 최형우가 연속 안타로 이대은을 두

들겨 3점을 뽑아냈다.

2회말에도 이명기가 2사 3루에서 번트 안타로 1점을 보냈다.

이명기는 4회말 1사 1, 3루에서 좌전 적시타로 추가점을 냈다.

그러나 KIA는 선발투수 임기영이 5회초 무너지면서 추격을 허용했다. 수비도 임기영을 돕지 못했다.

임기영은 5회초 무사 1, 2루에서 김민혁에게 2루수 땅볼을 유도했으나, 유격수 김선빈의 실책이 나오면서 1점을 헌납했다.

임기영은 황재균에게 2루타를 맞아 1사 2, 3루에 몰렸고, 강백호 타석에서 이명주로 교체됐다.

이명주는 강백호에게 1타점 좌월 2루타를 맞았다. 다음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를 2루수 땅볼로 잡았지만, 3루 주자 황재균의 득점을 막지는 못했다.

임기영이 남겨뒀던 주자가 모두 득점하면서 4%이닝을 던진 임기영의 자책점은 4점이 됐다.

kt는 6회초 장성우의 희생플라이로 5-5 동점을 만들었다.

KIA는 7회말 무사 1, 2루 기회를 잡았다.

박준태와 김민식이 연달아 범타로 물러났지만,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기량발전상’을 받은 이창진이 좌월 3점포를 날려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창진 8회말에는 문선재의 대타로 나온 해즐베이커가 우월 솔로포를 터트렸다. KIA는 9회초 무사 1, 2루 위기를 잘 넘



해즐베이커 기면서 승리를 지켰다. kt는 시범경기 3연패에 빠졌다. /연합뉴스

라이벌 메시-호날두, 골 ‘무한 경쟁’

호날두, UCL 16강 2차전 헤트릭... 메시는 2골 2도움

‘무한 경쟁’이다. 세기의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와 리오넬 메시(32·바르셀로나)가 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펼치는 득점쇼가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메시는 14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 노우에서 열린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올랭피크 리옹(프랑스)을 상대로 무려 2골 2도움의 공격포인트를 앞세워 바르셀로나의 5-1 대승을 이끌었다.

‘멀티골 향연’으로 메시는 이번 시즌 36골(정규리그 26골 포함)을 쏟아내면서 2008-2009시즌(38골)부터 11시즌 연속 매 시즌 36골 이상을 쏟아내는 무서운 결정력을 과시했다.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책임진 메시는 ‘전매특허’인 폭풍 드리블을 앞세워 후반 38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현란한 페인트 동작으로 수비수를 농락한 뒤 오른쪽 샷으로 멀티골을 작성했다.

메시의 ‘영원한 라이벌’ 호날두 역시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에 0-2로 패해 탈락 위기에 빠진 유벤투스였지만 호날두의 2차전 헤트릭으



로 1, 2차전 합계 3-2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합류하는 기쁨을 맛봤다.

호날두는 16강 2차전까지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1골밖에 따내지 못해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3골을 몰아치며 골잡이의 명성을 되찾았다.

돌을 따라올 수 있는 선수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메시와 호날두의 경쟁은 은퇴를 선언할 때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15일 펼쳐지는 8강 조추첨에 쏠리게 됐다. 조추첨 결과에 따라 메시와 호날두가 8강에서 맞대결을 펼칠 수도 있어서다. 그래도 팬들은 메시와 호날두가 결승전에서 ‘빅이어’(우승 트로피)를 놓고 경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